차세대 전력망 혁신 주도… 'K-그리드 인재·창업밸리' 본격화

27일 나주 캠퍼스서 'K-그리드 인재·창업밸리 조성' 간담회

김용범 정책실장·하정우 AI미래기획수석 등 산학연 30명 참석

AI·VPP·ESS 등 기술 실증·창업 연계… 한국형 전력망 혁신 논의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KENTECH·켄텍)가 차세대 전력망 산업의 혁신 거점이자 창업 생태계의 중심축으로 자리매김할 'K-그리드 인재·창업밸리' 조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

켄텍은 27일 나주혁신도시 본교에서 'K-그리드 인재·창업밸리 조성'을 주제로 기업 간담회를 열고 차세대 전력망 기술 개발, 인재 양성, 스타트업 육성 방안을 논의했다고 28일 밝혔다.

간담회에는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하정우 AI미래기획수석, 이원주 기후에너지환경부 에너지전환정책실장을 비롯해 스타트업과 대기업 관계자, 대학 연구진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전력망 산업 전반의 민관 협력 강화와 '한국형 실리콘밸리' 조성을 위한 첫걸음으로 평가된다.

참석 기업들은 차세대 전력망(K-그리드) 분야에서 인공지능(AI) 기반 재생에너지 발전량 예측, 가상발전소(VPP) 기술, 전력수요 관리, 장주기 에너지저장장치(ESS) 등 핵심 기술이 미래 에너지산업의 경쟁력을 좌우할 것이라는 데 뜻을 모았다.

또 인재 양성, 기술창업, 연구개발을 하나로 묶는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규제 완화와 투자 연계 등 제도적 뒷받침 방안도 함께 논의했다.

기업 관계자들은 "켄텍이 실증 테스트베드 역할을 주도해 기술 검증과 사업화를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켄텍은 이번 논의를 바탕으로 광주과학기술원(GIST), 전남대 등과 협력해 한국형 RTP(Research Triangle Park) 모델을 도입하고, 대학·기업·연구기관이 자유롭게 연구와 창업을 이어갈 수 있는 '오픈캠퍼스형 혁신 플랫폼'을 단계적으로 확장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지역 기반의 에너지 혁신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글로벌 전력망 기술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박진호 켄텍 총장직무대행은 "한국에너지공대는 차세대 전력망 혁신을 이끌 인재를 양성하고 기술 기반 창업을 촉진하는 'K-그리드 인재·창업밸리'의 중심축"이라며 "산학연이 함께 협력해 세계적 에너지 혁신 모델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나주/이명열 기자

27일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KENTECH·켄텍)에서 'K-그리드 인재·창업밸리 조성'을 주제로 기업 간담회가 열렸다, 행사에는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하정우 AI미래기획수석, 이원주 기후에너지환경부 에너지전환정책실장을 비롯해 스타트업·대기업 관계자, 대학 연구진 등 30여명이 함께했다. 사진=켄텍 제공

"일상 속 농업 즐겨요"… 광주시, 도시농부축제 개최

31일부터 시청앞 잔디광장… 도시농부들 기획·즐길거리 풍성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가 오는 10월31일부터 11월2일까지 사흘간 시청 앞 잔디광장에서 '2025 광주 도시농부 축제'를 개최한다.

'씨앗에서 밥상까지'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광주시가 주최하고 광주전남귀농운동본부가 주관한다. 광주지역 도시농업 단체들(한국마스터가드너광주지회, 한국원예치료복지협회 광주시지회, 한국치유농업협회 광주시본부, 한새봉두레, 청소년 삶디자인센터, 도시농업연구소 등)이 기획단계부터 축제에 참여했다.

이번 축제에는 ▲도시농부 밥상 체험 ▲텃밭 채소로 김밥·화덕피자 만들기 ▲국화 복주머니 만들기 ▲식물 영양제 만들기 등 '나도 도시농부'를 주제로 한 다양한 체험 활동이 마련됐다.

또 시민들이 도시농업을 생생히 느끼도록 주제 텃밭과 치유 정원을 조성하고, 도시농업의 철학과 역사를 엿볼 수 있는 ▲토종씨앗·작물·벼·쌀 전시 ▲호미와 옛그릇 전시 ▲도시농부 아카이브 ▲씨앗 나눔 특별전 등 전시회를 진행한다.

배귀숙 농업동물정책과장은 "최근 도시농업이 치유농업, 반려식물산업까지 확장되면서 시민들의 일상 속으로 스며들고 있다"며 "방문객들이 '나도 도시농부'라는 마음으로 도시농부들과 소통하고 축제를 즐기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도시농부축제는 '제32회 광주김치축제(우주최광(光) 김치파티)'와 동시 개최돼 다채로운 즐길거리로 시민들을 맞이할 예정이다.

/신영길 기자

'광융합기술 현재와 미래' 한 자리에 광주시, '국제광융합산업전시회' 연다

30~31일 김대중컨벤션센터…70여개 기업·기관 참여

국내외 광융합산업의 최신 기술과 시장 동향을 한 자리에서 볼 수 있는 전시회가 광주에서 열린다.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오는 30일부터 31일까지 이틀간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제23회 국제광융합산업전시회(포토닉스코리아 2025)'를 개최한다.

이 행사는 광주시와 산업통상부가 공동 주최하고, 한국광융합산업진흥회가 주관한다.

올해 전시회에는 국내외 70여 개 기업과 기관이 참가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할 광융합 기술의 현재와 미래를 조망한다. 광융합산업은 인공지능·자율주행·통신·반도체 등 미래 첨단산업의 핵심기술 기반으로, 지역 산업 경쟁력 강화와 기업의 수출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시회는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 상담회 ▲광융합기술 학술회의(컨퍼런스) ▲광융합산업 포럼 등으로 구성된다.

특히 8개국 80여명의 해외바이어가 참여하는 현장 수출상담회에서는 다수의 수출계약 체결 등 성과가 예상된다.

또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이 주관하는 '테크 데이(Tech Day)'에서는 광융합산업의 기술 발전 방향과 산업 동향을 공유하고, '광융합 산업 포럼'에서는 기업, 연구기관, 학계 전문가들이 참석해 산업 생태계 활성화와 국제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광주시는 이번 행사를 통해 지역 광융합 기업의 기술력과 글로벌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광융합 산업의 세계적 중심도시로 도약할 계획이다.

최태조 인공지능산업실장은 "이번 전시회를 통해 국내외 산업계와 연구기관이 함께 교류하며 광융합산업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뜻깊은 자리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임채일 기자

광주시, 상생카드 5% 추가 환급… 소비촉진 앞장

10월29일~11월9일까지 정부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 연계

기존 13% 포함해 18% 환급 혜택… 소상공인 매출 증대 기대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10월29일부터 11월9일까지 열리는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 기간 동안 광주상생체크카드 결제금액의 5%를 추가 환급(캐시백)하는 특별할인 행사를 실시한다.

이번 행사는 정부의 대규모 소비진작 행사인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과 연계해 추진되는 것으로, 시민들의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 소상공인 매출 증대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행사기간 광주 전역에서 광주상생체크카드를 이용하는 시민은 기존 13% 기본할인에 5%를 추가한 18%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구매 때 선할인되는 광주상생선불카드는 환급 대상에서 제외되며, 특별재난지역(북구, 광산구 어룡동·삼도동) 대상 5% 추가 환급(캐시백)과는 중복 적용되지 않는다.

광주시는 이번 특별환급을 통해 침체된 지역 소비심리를 회복하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매출 증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광주시는 올해 1~2월에도 '광주상생카드 특별할인(10%)'을 시행해 사용액이 전년 하반기 월평균 대비 42% 급증하는 등 지역경제 활력 회복의 성공사례를 입증했다.

전영복 경제정책과장은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 기간동안 광주상생체크카드 추가 환급(캐시백)뿐만 아니라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특별 환급, 자동차·가전·농축수산물 등 전 분야를 아우르는 특별 할인이 진행될 예정"이라며 "시민들의 합리적이고 따뜻한 소비가 지역경제 활력 회복의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광주시는 지난 7월 서민경제의 핵심인 골목상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민생경제를 회복하기 위해 광주상생카드 할인율을 13%로 상향하고, 온누리상품권 5% 환급,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등이 담긴 '7+2 민생회복 지원 정책'을 내놨다.

광주시는 앞으로도 '광주경제 다 함께 착착착(착한소비·착한금융·착한일자리)', '광주상생카드 활성화' 등 민생경제 회복 정책을 지속 추진하며, 시민이 체감하는 경제 활력을 높여갈 계획이다.

/우 인 기자

출하지역 확산으로 채소류 약보합세… '쌀값은 강세'

배추·상추 내리고, 애호박·쌀은 상승세

10월 중순 들어 출하 지역 확산으로 채소류 가격이 약보합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광주전남지역본부가 전날 광주 양동시장 소매 가격을 기준으로 조사한 농수산물 가격정보에 따르면, 쌀값은 강세를 유지한 반면 채소류는 출하 지역 확산으로 안정세를 보였다.

관심 품목인 쌀(일반계 20㎏)은 6만3200원으로 2주 전보다 소폭(-0.5%) 하락했으나 1년 전보다 23.9% 상승하며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이는 지난해 수확량 감소와 저장 수요 증가의 영향으로 분석된다.

반면 생육 호전으로 공급이 늘어난 배추(1포기 2~3㎏)는 2주 전보다 28.7% 하락한 5350원, 상추(청상추 100g)는 13.8% 내린 1000원에 거래됐다.

애호박(1개)은 잦은 강우와 일조량 부족, 출하 교체기의 영향으로 공급이 줄어 22.0% 오른 1830원을 기록했다.

과일류는 추석 이후 소비 둔화로 사과(홍로 10개)가 2주 전보다 21.7% 하락한 3만 원에 거래됐으나 지난해보다 50%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배(신고 10개)와 단감(10개)은 각각 3만3800원, 1만6200원으로 보합세를 보였다. 이 외에도 대파(-20.9%), 청양고추(-5.0%), 생강(-2.5%) 등 일부 품목은 하락세를, 갈치(+2.7%)는 소폭 상승세를 보였다.

aT 관계자는 "채소류는 기온 하강으로 충청·호남권 출하 지역이 확산하며 공급이 늘고 있지만, 김장철 소비가 본격화되지 않아 단기간 약보합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aT는 소비자들의 합리적 장보기를 돕기 위해 농수산물 가격정보와 제철 농수산물, 알뜰 장보기 정보를 'KAMIS'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하고 있다.

/신종팔 기자

광전매일신문 TEL. (062) 525-9775 FAX. (062) 528-4566